

눈물겨운 목포시 인구 23만명 지키기

인구 유출 계속...올해 1500명 감소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주고 시립예술단원 주택수당 지원 시, 예산 반영 등 총력전 펼쳐

목포시 인구 23만명 붐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23만을 지키기 위한 목포시의 노력이 눈물겹다.

10월말 기준 목포시 인구 수는 23만2580명(남자 11만5878명, 여자 11만6702명)이다. 전달 23만2842명에 비해 한 달 새 300명가량 줄었다. 연초 23만4072명과 비교하면 1500명이나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새 해가 시작되면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700~900명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3월쯤이면 목포시 인구 23만이 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목포시장과 목포시의회의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연설이나 축사 서두에 항상 '24만 목포 시민'이라고 강조하지만 10년 가까이 목포시 인구는 23만을 겨우 웃돌고 있어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원도심 쇠퇴와 무안에 남작 신도시가 조성되면서부터 예견됐다. 옆진 데 앞진 격으로 무안 오피스텔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23만 붐기는 '볼 보듯 뻔하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목포시가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입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내놨다.

이 시책은 목포시로 전입한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청년층 인구 유입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현재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의 기숙사 정원은 목



목포시가 전입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 이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시가지 전경.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포해양대 1605명, 목포가톨릭대 180명, 목포과학대 659명 등 총 2439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타 시군에서 전입할 경우 총 3회에 걸쳐 최대 4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목포시의 방침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1년 거주했을 때 10만원, 2년차에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또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 합창단을 비롯한 시립예술단체 단원들이 광주 등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지를 목포시로 옮길 경우 단원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시책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 54명 중 48명이 주소지를 목포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목포시의 눈물겨운 인구 지키기 시책은 당장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여성계에서는 "인구 감소는 결혼, 임신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보육, 주거,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중대한 문제"라며 "우선 인구감소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는 보고 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은 "목포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23만 붐기가 예견되고 있지만 집행부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포시 인구감소의 최대요인 중 하나인 인구가동에 대한 대책과 저출산 대책 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시 최초 국가지정 보물 탄생한다

문화재청, 달성사 지장보살 삼존상·시왕상 보물 지정 예고

목포시 최초로 국가지정 보물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10월말 관보를 통해 유달산 자락에 위치한 달성사 '지장보살 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9일달성사에 따르면 지장보살 삼존상은 1565년(명종 20년)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해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地藏三尊), 시왕(十王), 판관(判官)과 사자(使者) 등 19구로 이루어진 대단위 불상 군이다. 또 시왕(十王)은 지역에서 지장보살을 모시고 망자를 심판하는 일을 관장하는 10명의 왕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조각 가운데 지장보살 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남아있는 가장 빠른 시기의 작품으로, 불교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장보살상의 경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半跏) 자세를 취하고 있어 '강진 무위사 목조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지장보살상'(보물 제1312호),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상'(보물 제1666호)과 함께 조선 전기의 보기 드문 형식으로 희소성과 조형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게 목포시 문화유산 담당의 설명이다.



목포 유달산 달성사 법당에 봉안된 '지장보살 삼존상'.

지난 2016년 4월 보물 신청 이후 2017년 9월 현지 조사와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앞으로 달성사 지장보살 삼존상과 시왕상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의견이 없으면 오는 13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와 관련 달성사 주지 도정 스님은 "이렇게 형상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유물들은 없다"면서 "목포로 바서는 보물로 승격된 것은 처음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의회 현장 조사...예산 심의 간간해졌다

목포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간간해졌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 목포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부주산 파크골프장 등 목포시 관내 문화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심의했다.

통상 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설 보수비는 집행부 설명과 서류만으로 승인해 주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눈으로 확인한 이후 예산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영장 누수와 조명시설 보수와 관련 현지

심의에서 "땀질식 보수를 하다보면 몇 년 내 또 보수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경에 추가예산을 세워서라도 반영구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김귀진 관광경제위원장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확연하게 드러나 판단을 내리기가 수월했다"면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부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상임위 무용론이 대두됐지만 이번 현지심사를 계기로 이같은 잡음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청사에너지 절약 7년 연속 최우수 선정

목포시가 청사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목포시는 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기준치 대비 54%를 절감해 포상금으로 3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2017년에도 기준치 대비 56.86%를 절감해 보통교부세 39억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 인해 목포시 회계과가 지난 7년 동안 받은 포상금만 26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목포시가 지난 2012년부터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타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비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도 목포시는 지난해 받은 교부세를 활용해 민원동 옥상 태양광 발전장치(30kW)를 설치하고 LED 등기구를 교체했다.

특히 실내 적정 난방과 냉방온도 적정 유지에 힘을 쏟은 결과라는 게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는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야외주차장 75kW와 본관 옥상 60kW 등 총 135k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연간 2500만원에 달하는 전기세를 절약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본관 도시계획과 옥상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 방문 안전 점검·간담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지난 5일 내년 2월부터 운영 예정인 무안고정익항공대를 방문 고정의항공기 격납 사전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여수에서 운영중인 CN-235 2대(B703, B704)와 제주고정익항공대에서 운영중인 C-212 1대(B702) 총 3대를 무안격납고로 이동해, 동시 격납테스트 결과 안전성에 이상 없이 시연을 마쳤다.

서해해경청장과 본청 항공과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현장 고충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홍 서해해경청 항공과장은 "무안격납고에 고정익항공기 3대 배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항공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빈틈없



는 해상주권 수호를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격납고는 총사업비 73억원을 들여 2016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데 금년 11월 19일 준공 및 보안 시설 승인을 마쳤으며 내년 2월부터 양양, 제주, 여수 고정익항공기 각 1대씩 총 3대를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 배치해 무안고정익항공대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넓고 깊은 바다에서, 미래 인류의 유일한 삶을 위해 땀흘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주역들! 건강한 먹거리는 물론 기능식품, 기초의약, 생활화학, 대체에너지 분야 등 아직도 가보지 못한 미답의 분야까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이 사업이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2018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사업을 펼쳐 전남지역 46개의 예비창업자와 수산기업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 1 전남지역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
- 2 수산산업에 특화된 창업 및 기업교육 실시
- 3 수산 가공 기술 및 마케팅, 입주 지원

제품개발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인증 및 분석 지원 등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HACCP기준 가공식품 및 GMP기준 기능성식품 생산 및 OEM입자공기시설 완비
통조림 제조 장비/ 추출*농축설비/ 파우치 제조 장비/ 건조(동결*저온건조)설비

• 문의전화: 061)550-1722~5
• 홈페이지: www.jmbic.or.kr www.jbf.kr

해양수산부 JeollaNamdo JBF 해양바이오연구센터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